

# 쌀값 폭락에 숯덩이 된 농업인 지원

## 전주시, '농업인의 날' 맞아 풍남문광장서 '쌀 소비촉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전주시가 직거래장터 개설로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전북지역 농업인들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풍남문광장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업인과 '정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거래장터에서는 전주시민 및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북전주농협의 '벚단기', 전주농협의 '어울진', 경진라이프의 '참깨 구리쌀', 가나인협회의 '가나인쌀' 등이 판매됐다.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쌀값(80kg 기준)은 12만9800원 정도로 지난 1996년의 13만9600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지난 1985년 128.1kg에서 지난해 82.9kg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래떡 데이(11월 11일)'의 의미를 되살려 가래떡 시식 및 판매 행사와 함께, 100% 국내산 쌀로 만든 (주)대유푸드의 누룽지 시식 및 판매행사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주시 마을기업인 전주한옥마



**덕유산 정상에 첫눈**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외)에 따르면 지난 10일, 덕유산 정상인 함적봉(1,614m)에 첫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첫눈은 10일 16시 30분부터 20시까지 내렸고, 약 3cm의 눈이 정상부에 쌓였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15일 빠르게 내렸다. 사진은 등산객들이 눈 내린 덕유산 정상에 오르고 있는 모습.

을협동조합(대표 이재덕)은 전주향교에서 전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및 관계자, 학부모, 한옥마을 관광객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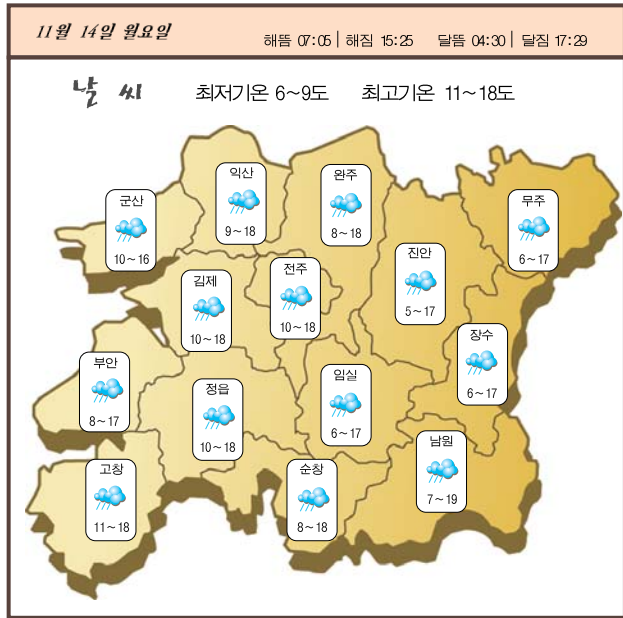
'가래떡 나눔의 날'은 상업적 목적으로 확산된 '베베로데이'에 대항하면서, 고유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안심 먹거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주관으로 6년째 이

어오고 있다.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명', 가래떡 만들기, 우리나라 지도에 가래떡 수놓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한옥마을협동조합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떡매치기 등 가래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전통 먹거리

의 중요성과 우리 쌀의 소중함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왔다.

오춘자 한옥마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수입재료와 방부제, 식품첨가물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패패로 보다는 우리의 건강과 전통을 지키는 가래떡을 먹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래떡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 농업인 권익 향상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이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종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동 의원(완산중화선·2동)은 농업인의 날인 11일 전주 알펜시아 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전주시 농업인단체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전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수입 농산물 개방과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인재육성재단, 서울 종로구 소재 풍남학사 방문 '격려'

## 주요업무현황 청취·선배들과 만남 시간 통해 학업 정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12일 오후 선별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과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재단 이사 등 4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주풍남학사를 방문했다.

이번 풍남학사 방문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그간 장학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던 장학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미래인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참가자들은 풍남

학사의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 시찰, 학생들과의 소통 간담,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학업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김이경 학생은 "그동안 진로에 고민도 많았는데 풍남학사 방문을 통해 학습 분위기를 배우고, 선배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글로벌 해외연수 장

학생 지원사업으로 69억원(도비 포함)을 투입해 1,278명의 초·중·대학생들을 지원했다.

또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8억여 원을 투입해 1,225명의 고·대학생 및 특기생들을 지원했으며, 청소년 자립자금을 위해 397명에게 2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앞으로도 장학사업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재단 장학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초청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장학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단 장학사업 외연을 확

대하고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는 후배들을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풍남학사는 전주시와 시민, 기관·단체의 성금 120억원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부지 1983㎡, 건축면적 590㎡, 연면적 2,778㎡(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기숙실과 식당, 도서관, 체육시설, 소회의실 등 현대식 건물로 매년 전주시 지역 출신 대학생 90명씩을 배출해 내고 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풍남학사 건립시 27억원을 지원, 풍남학사를 거쳐 졸업한 학생들이 현재는 사회인으로 사회각계 각층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 식약처, 최순실 단골 병원 '마약류' 조사 착수

보건당국이 최순실씨 단골병원에서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해당병원들의 마약류 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남보건소에 '김00 성형외과와 '차병원 차용의원에 대한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날부터 해당 보건소가 본격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최씨가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논현동 김00 성형외과는 항정신성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항정신성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병원 차용의원도 최씨가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대리처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약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담당이었던 김00씨는 2012년 박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식약처는 차병원 차용의원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할인 강남보건소는 이날부터 두 병원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립서울의료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